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7강

의인화된 지혜 2부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세션입니다. 은유와 의인화된 지혜 파트 2입니다.

잠언에 관한 일곱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은유이론 탐구의 두 번째 부분인 현대은유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잠언의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본문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은유 이론에 관한 제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에 출판되어 지금은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 and Thought라는 제목이 붙은 Metaphor and Thought의 세 번째 판에 제시된 종류의 획기적인 통찰력을 좀 더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유 이론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환상적인 책입니다. 이것은 저렴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대 은유 이론의 최첨단 또는 최첨단에 가까운 것을 탐구하는 데 한 푼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Raymond Gibbs가 편집했습니다. Raymond Gibbs는 이 책이 지금까지 출판된 다학문적 은유 학문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에세이 모음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ibbs는 이제 일상 언어와 전문 언어, 추상적인 사고와 사람들의 감정적 경험 모두에서 은유의 편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많은 학문 분야의 실증적 연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유가 인간의 인지, 의사소통, 문화에 미치는 본질적인 기여를 더욱 완전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은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정신과 의미 이론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며 일상생활에서 은유적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ibbs는 은유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발견이 은유의 일반 이론에 중요한 제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초 학문과 응용 학문 사이의 놀라운 상호 작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은유가 인간의 인지 및 의사소통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은유가 만들어지기 위해 특별한 인간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점 더 많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해했다.

다시 Gibbs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은유는 두뇌, 신체, 언어,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몸짓, 예술, 음악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다른 영역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1979년과 1993년에 각각 출판된 *Metaphor and Thought*(은유와 사고)의 초판 대부분과 제2판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성찰과 대조됩니다. Gibbs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적 인물의 창조는 상당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특별한 개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합니다. 자연적인 맥락에서 실제 인간이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면 Gibbs가 은유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은유는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스펙터클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를 다시 인용하자면, 은유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체 경험의 광범위한 패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은유는 상상력, 즉 우리의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특별한 미적 즐거움을 동반하는 새로운 이해 방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창의적인 시적 은유는 동시에 은유적 사고의 지속적인 계획의 확장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새롭게 창조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은유적 사고의 기반을 구체화하는 연구는 은유에 대한 일상적인 동시에 극적인 것 사이의 연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우리를 은유 연구의 흥미로운 학제간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이제 현대 은유 이론과 은유에 관한 이야기의 은유적 성격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은유는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은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은유적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거나 풍성해집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유에 관한 은유적 이야기, 즉 메타은유적 이야기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예는 매우 존경받는 성서학자인 GB Caird의 잘 알려진 은유 설명입니다. 이것은 1980년부터 성경의 언어와 이미지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Lakehoff 이전의 것입니다.

케어드는 렌즈의 비유를 통해 은유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나는 이 비유가 성경 연구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은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우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Caird의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볼 때 물체에 집중하고 렌즈를 무시한다는 것을 인용합니다. 은유는 렌즈이다. 그것은 마치 화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내가 본 것을 보십시오.

렌즈가 없었다면 결코 눈치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메타적 은유적 설명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고 그 모호함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표현이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주 언급되거나 현재 종종 은유의 장식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Caird는 은유가 독특한 보는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강조하지만, 은유 없이는 불가능한 은유를 통해 표현된 개념, 은유의 본질과 기능을 설명하는 그의 은유의 즐거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우리가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볼 때 물체에 집중하고 렌즈를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보고 렌즈 없이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을 본다는 바로 그 진술은 은유적 표현 자체가 인지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Caird의 메타 은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오해를

블러일으킵니다. 첫째, 은유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한 번도 알아차린 적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려져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둘째, 목적에 유용한 대부분의 렌즈는 확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없이도 이미 본 것, 단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예, 우리는 자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체의 작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렌즈가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다르게 보는 데 도움이 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왜곡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결함이 있는 렌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표현되는 내용의 의미와 은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 모두에 은유적 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Caird의 진술과 반대되는 은유적 표현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가치인 은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은유적 표현의 기여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은유적 표현 자체를 고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는 지혜 의인화에 대한 나의 참여 중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탐구했던 지혜 획득의 은유와 관련하여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실제로 이제 메타포적 의사소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은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은유적 표현은 생각의 흐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영어에서 이미 통용되는 메타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생각의 기차를 따르고, 생각의 기차를 추구하고, 생각의 기차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은유는 명백히 죽은 은유를 되살리는 일련의 사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전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내 유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 여행자를 초대하여 상상의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생각의 기차로서 이 체계적인 은유 개념과 연결된 다른 은유의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유와 관련된 평범함이 실제로 길을 따라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상상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차로서의 은유는 은유가 표현하는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는 발견의 여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날 따라와. 우리가 비유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관상의 대상은 여행의 끝, 우리의 사고 여행의 목적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티켓은 왕복 티켓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최종 목적지까지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할 수 있는 힘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생각의 기차는 우리가 선택한 차량의 특성에 따라 미리 결정된 궤도, 즉 궤도를 따라 우리를 운반합니다.

또 다른 은유. 이 기차는 우리를 지금까지만 데려다 줄 것이며 랜드마크가 낯설어지고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닌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차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를 이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리 데려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차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우리는 출구 역을 놓쳤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기차에서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은유는 먼 거리에 딱 들어맞아 우리를 이해의 목적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할 때가 왔습니다. 이 은유는 우리를 다른 차량을 탈 수 있는 정신적 중계소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차노선이든, 또 다른 은유이든, 대체 버스든, 직유든, 택시든, 환유가 되거나, 렌트카든 그것은 대유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내 메타 은유에 나오는 모든 차량은 대중 교통 수단이며, 은유가 공동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같은 열차를 계속 타야 할지, 아니면 갈아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여정의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지만, 더 빨리 내릴수록 이 기차가 실제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워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치 있고 실제로 우리 이해의 경계를 넓히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랜드마크, 모두가 인식하는 흔한 장소를 넘어서야만 우리는 즉시 진정으로 새로운 통찰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차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이상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도 우리는 기차에 대한 은유적 비유가 약간 무너져 은유적 사고 여행이라는 상상의 세계에서 즉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윈윈(win-win) 상황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표를 가지고 있고,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에 내려야 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곳으로 곧장 되돌아가서 목적지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또 다른 은유적 교통 수단을 타고 여행을 되돌아갑니다.

은유 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사고에 대한 나의 메타 은유입니다. 전통적인 은유 이론과 그 적용에서 Kehr의 예에 나오는 렌즈처럼 은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장식을 하기 위해 뭔가를 좀 더 흥미롭게 들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은유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은유적 표현은 정신적, 인지적 진보에 필수적이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의인화에 관한 추가 텍스트를 볼 때 7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탐구할 것처럼, 우리는 지혜와 지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로 의인화 은유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머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제7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잠언의 핵심 의인화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기 위해 은유 이론에서 얻은 더 많은 통찰을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7장 4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명철을 네 친한 친구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음란한 여자와 그 부드러운 말로 음녀에게서 지켜 주리라 여기서 지혜는 분명히 의인화되어 있지만, 4절에서 5절의 명령이 1절에서 3절의 앞선 세 명령, 즉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고 묶는 것의 병치는 여기서 지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의인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암시합니다.

의인화는 4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 있는 친구라고 부르는 4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 사용된 동사 형태인 부정사는 특별히 여성형이 아니지만 5절까지 계속됩니다. 마이클 폭스(Michael Fox)는 그의 논평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요약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 구절은 마치 그녀가 사람인 것처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일관되게 사람으로 취급되는 8-9장과 대조적으로 표현에서는 '처럼'이 유지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인격체로 언급하고 있지만 지혜를 인격체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의 요점은 관계 자체의 성격입니다.

아가서와 이집트 사랑 노래에서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매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하는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에 대해 극명한 대위법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성적 끌림을 암시하지 않으면서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와 이집트 사랑 노래에서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의 친구는 남자 친구를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자매라는 에로틱한 의미가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자매라는 용어는 4장 9절, 10절, 12절과 5장 1절에 네 번 등장하는데, 매번 남자가 여자 애인에게 부르는 내 누이, 내 신부라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잠언에는 쌍둥이 신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에 함축된 에로틱한 의미는 여기서 더욱 약해진다. 자매는 단순히 가족이나 혈연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자신의 논평에서 그 언어가 명백히 에로틱하고 그것이 구절의 기초가 되는 상징을 구체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언어는 아가서보다 덜 구체적으로 에로틱하며, 거기에서도 노골적으로라기보다는 암시적인 시를 통해 암시됩니다. Fox가 지적한 것처럼 자매는 성적인 매력을 암시하지 않고도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의 맥락에서는 적어도 배경에는 섬세한 낭만적인 배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낙담한 낯선 여성과의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성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인화는 명백하게 문학적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지혜의 여성성은 이 특별한 의인화 사례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혜를 사람과 관련시키도록 격려하지만 폭스가 제안한 것처럼 지혜를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의 요점은 관계 자체의 성격입니다. 남자와의 우정, 자매에 대한 애정, 로맨틱한 사랑은 각각 추천하는 관계를 똑같이 잘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인간 사이의 전형적인 평등주의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귀한 여인 지혜의 형태로 인간과 완전히 의인화된 지혜 사이의 비대칭 관계를 묘사하는 1장, 22-33절, 8장, 1-36절, 9장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36절로 이루어진 매우 긴 장이며, 그 모든 내용은 매우 확장되고 매우 정교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강의에서는 모든 구절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장의 시작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사항을 강조하고, 특히 22절, 30절, 32-36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토론의 대부분은 Bruce Waltke의 이 장에 대한 탁월한 참여에 대한 대화와 종종 긍정 또는 비평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종종 나는 은유 이론에 대한 나의 이해가 Waltke의 작업에서 본 것보다 한두 단계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의 의인화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지혜의 해석에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지혜의 의인화는 이전 장들의 의인화와 종류가 다르지 않다.

1~7장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여기에 제시된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인식에 반영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잠언 8장의 지혜는 의인화된 지혜의 수용 역사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던 22-31절뿐만 아니라 장 전체에 걸쳐

의인화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장 전체의 배경을 바탕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 번째 측면입니다. 22-31절의 역사를 이렇게 특별하고 풍부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장 전체를 해석하고 부자에 대한 기여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전체에 의인화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언급했는데, 잠언 8장은 잠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가장 상서로운 지혜의 의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자기 찬양과 가장 가까운 형식적 유사점은 신이 1인칭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메소포타미아 찬송가입니다.

잠언 1-9장의 더 넓은 맥락에서 지혜의 말은 Waltke가 인식한 것처럼 잠언 1장 22-33절과 일치합니다. 내가 인용하자면, 성문에 있는 지혜의 의인화는 프롤로그의 마지막 잠망경 다음이고 처음부터 두 번째 평행 의인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혜에 의한 이 두 연설의 설정과 연설, 어휘는 유사하며,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그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결론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tke는 잠언 1장과 잠언 8장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입장 사이의 차이점도 지적했습니다.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연설에서 그녀는 두 번째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들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부했다고 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판단 후의 기회. 하지만 여기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도덕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Waltke는 1-22-33과 8-1-5에 대한 해석의 모순과 불일치를 나란히 두는 데 만족해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혜의 초기 의인화를 이후 구절에 비추어 다시 읽어야 하는 사례를 발견합니다. 특히 잠언 1-20장에 나오는 청년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잠언 8장의 지혜 연설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1-10절의 서론과 함께 일곱

부분으로 나뉘며,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11-31절의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의 작은 부분과 32-36절의 결론은 학문에서 종종 무시됩니다.

글쎄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Waltke의 개요를 약간 수정한 것이며 Waltke는 그의 논평에서 Raymond van Leeuwen의 구조 분석 분석을 채택하고 적용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미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인화된 지혜 연설의 본문과 관련하여 특히 도움이 되는 Waltke의 구조 분석에 다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인용하자면, 지혜는 그녀의 찬사, 즉 그녀의 엄청나게 높은 자기 찬양을 10개의 구절로 구성된 두 개의 동일한 절반으로 발전시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시간(12-21절)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원시 시간(22-31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통치할 수 있게 하고 연인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조언, 이해, 힘이라는 지혜의 전달 가능한 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22-31절에서 그녀에게 명백한 고귀함, 능력, 권위를 부여한 나머지 창조물 이전의 신성한 출산과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지으신 방식에 대한 그녀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첫 구절에서는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진술을 발표하는 화자로서 의인화된 지혜를 소개합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고유한 특성과 지위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너무 많아서 간략한 요약 목록이 아마도 데이터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첫째, 1-4절에 나오는 지혜의 위치와 청중입니다. 그녀는 도시 내부의 주요 교차로와 성문에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호소력은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며 도시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여행자,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2절은 들판의 주요 도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과는 달리 지혜의 말은 남성 복수형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복수형은

Waltke가 지적인 대로 일반적인 페니키아 복수형이지만, 특이한 변형의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남성 복수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해석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의미하는 두 번째 줄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 문구는 31절에 다시 나타나 지혜의 연설을 구성합니다. 출신과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지혜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배려하고 찾아 나섭니다.

이 진술은 Michael Fox의 의견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며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즉 다른 연설가와 경쟁이 아니라 비즈니스, 정치, 분쟁으로 인한 일상의 방해 요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난해하거나 학문적이지 않고, 지혜는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로 뛰어들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며, 다시 마이클 폭스의 논평에 나오는 말을 사용합니다.

Waltke의 의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산을 전수하는 현자는 학식이 있거나 종교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밀교 집단의 수도원에 은둔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집에만 은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마도 성문의 장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자신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단지 Waltke가 여기서 남성 중심 언어로 빠져들어 여성적 지혜의 의인화를 남성 현자의 말로 축소하고 비은유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의 의인화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초기의 은유 이해에 대한 전형적인 오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서 지혜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황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룬다.

잠언의 다음 장 10-31장에 나오는 실용적인 조언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남성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의 중심 연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언 8장 14-16절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이것을

확증합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강력한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Waltke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통치자들은 의인화된 지혜의 관대함의 독점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고, 그녀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거리의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정부를 통해 왕자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지혜는 모든 연인들에게 필요한 변경을 약속합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지혜의 위치와 청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21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여기서 두 번째 요점으로 지혜의 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가치. 잠언 8장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에게서 배우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르치는 내용은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건전합니다(6-9절). 그녀는 잠언 3장에 이미 등장한 주제인 10-11절의 가장 값비싼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Waltke는 적절하게도 그녀가 자신의 말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적절하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하기 힘든 말도 있고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종이 아닌 자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성실한 아내의 말은 7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처음은 달콤하고 끝은 쓰다. 지혜의 말은 처음에는 규율을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약속합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잠언 8장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암시적으로 잠언서의 전체 가르침을 듣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혜는 본질적인 가치와 미덕 때문에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구체적인 사회적,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고 생활 방식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잠언 8장의 첫 부분이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식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초대의 새로운 이슈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의 자기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근신으로 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서문인 잠언 1장 4절에도 동일한 지적 특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2과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인화된 지혜의 말이 잠언 1-9장 전체의 전체적인 구성에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책 전체. 특히 의인화된 지혜에 관한 섹션에서 볼 수 있듯이 지혜는 전달 가능한 미덕입니다.

의인화된 덕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altke의 의견에 따르면, 지식과 분별력을 찾는 지혜의 모습은 지혜 자체가 미덕을 추구하는 믿는 사람의 역할을 모델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인용하면 이러한 미덕은 지혜와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는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14-16절에서 지혜는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은사, 조언, 능력, 권력, 효과적인 정치를 위한 필수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인간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유사점은 의인화된 지혜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함을 시사합니다. 첫째, 욥기 12-13장에는 지혜와 능력과 모략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둘째, 이사야 11-2장에 묘사된 이상적인 메시아 왕 위에 임할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두려워하는 영으로 묘사된다. 주님. Wal Tke는 8-14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면서 신약성서와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이 속성들의 집합은 지혜를 주님께 매우 가까이 가져다 준다고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2-13장에 따르면 주님도 그녀가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특성은 통치자에게 필요합니다. 8-15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사야는 그들의 중재자이신 주님의 역동적인 영을 메시아 왕 이사야 11-2장에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0장과 다른 많은 신약성경 구절을 참조하세요.

의인화된 지혜는 이러한 지적 속성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 중 하나와 함께 거주하고 다른 하나를 발견한다는 진술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잠언 8-22장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그림은 의인화로서의 지혜가 그녀가 구현하는 미덕이나 자질보다 다르며 그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14-16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녀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간들에게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좋은 조언과 건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공의를 선포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귀인들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다스리느니라.

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이 소유한 특성을 전달하는 방식은 자신의 도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 왕과 통치자들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문학적 장치 이상의 것을 암시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비유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과 신약성서에서 다소의 바울이 성령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잠언 8장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왕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공의를 선포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귀인들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다스리느니라. 15-16절.

이 보편주의는 바룩 3장과 벤 시라 24장을 배경으로 훨씬 더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이는 의인화된 지혜를 이스라엘만의 현상으로 만듭니다. 잠언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는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는 유일한 전달자입니다. 14-

16절은 지혜가 인간에게 부여된 여러 미덕과 신성한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부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잠언 8장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인화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개념은 잠언의 다른 곳, 예를 들어 4장 6절, 7장 4절, 29장 3절, 그리고 아마도 8장 34-35절에도 나타나지만 잠언 8장에서 가장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라.

21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문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의인화된 지혜가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인류를 어떻게 기뻐했는지 설명합니다. 마이클 폭스(Michael Fox)는 현명하다는 것은 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어쩌면 그녀를 찾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Waltke는 또한 의인화된 지혜의 첫 등장에서 어조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1.20~33에서는 위협적인 말을 사용했다.

여기서 그녀는 오직 사랑의 언어만을 말합니다. 그는 지혜와 구도자 사이의 사랑의 완전한 상호성을 인정했지만, Waltke가 의인화된 지혜와 책의 가르침을 끈질기게 동일시했다는 점은 다음 진술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인용하자면, 의인화는 현자의 가르침이 영적인 애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에 동화될 것입니다. 지혜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관계에 대한 의인화된 지혜의 해석적 설명에서 무엇인가 상실되었다는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의의 길로 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며 그들의 공간에 채우느니라 8:17-21. 예를 들어, 월트케 자신이 지적했듯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유사한 성서적 진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30. 물론 시편 18장 26절과 동일한 사무엘하 22장 26절도 참조하라.

그리고 시편 145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집트 지혜 문헌에도 비슷한 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Ta)는 그를 사랑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후대들이 지혜의 의인화에서 어떻게 신성한 특성을 인식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2-31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나머지 부분, 어쩌면 잠언 8장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도 같은 길이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2-26절은 창조 전 지혜의 기원을 말하고, 27-31절은 창조 동안 지혜의 존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Bruce Waltke는 두 부분을 하나로 묶는 주제별 교차점을 발견했습니다.

A. 지혜의 기원(22-23절) B. 창조의 부정적인 상태(24-26절) 비'.

창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27-29절) 그리고 A'. 인류의 기원을 기념하는 지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Waltke가 잠언의 가르침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것은 22-31절에서 그의 견해로 솔로몬의 가르침을 초월적인 높이로 끌어올리는 인용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Waltke에 따르면 22-31절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선재성 입증은 지혜의 가르치는 권위를 확립하는 고귀함의 특화로 기능한다.

둘째, 지혜의 가르치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지혜의 종합적인 지식의 실증이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지혜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지혜의 가르침의 효능을 확립합니다. 데릭 키드너(Derek Kidner)의 말을 인용하자면, 일상적인 일들을 본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애초에 그것들을 신적으로 만들고 질서를 잡은 지혜입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기쁨과 관련하여 Waltke는 일반적으로 우주 질서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기쁨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용문, 사회 질서를 감소시키는 현명한 통치자의 능력은 우주를 질서 짓는 하나님의 법령에 대한 그녀 자신의 기쁨과

일치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혜의 기쁨의 전체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고 인류에 대한 지혜의 기쁨의 동기 부여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대상으로 인간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그녀의 무한한 열정과 지대한 애정을 강하게 강조한다. 암시적으로 그녀의 의도는 한없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녀의 가르침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인류를 위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인류에 대한 의인화된 지혜의 기쁨에 관한 진술이 미치는 영향은 관계형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동기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초대교회 잠언 8장에 대한 초기 기독교론적 해석의 고전 본문 중 하나인 22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절은 창조보다 지혜의 우선순위가 일시적인 것, 즉 이전의 것일 뿐 아니라 질적인 것, 즉 아마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일 수도 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동사 kana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더 압축하고 싶고 가나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제가 이미 강의 초반에 이에 대한 일부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단순히 여기서 가나의 의미가 획득이라는 은유적 개념의 연속이자 확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의 개념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또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동사에 대해 제안된 번역은 특히 여기 8장 22절에 있습니다. 최소한 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매우 은유적이거나 심지어 초은유적이라고 말해야 할 경우 원시 시대의 지혜의 존재와 움직임, 정체성에 대한 자기 표현이 의도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이스라엘 신앙의 초기 맥락에서,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 획득되거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거나 사용된다는 개념은 독단적이거나 조직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의 다중성을 통해 다른 의미가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Waltke는 이 구절이 탄생의 이미지를 그녀의 시작에 적용하는 지혜를 의인화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Waltke는 즉시 그 구절 해석의 역사에서 두 가지 심각한 유형의 오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용하는 바는, 지혜를 낳는 일에 있어 주님과 성적 파트너를 관련시키는 문자 그대로의 다신론적 해석은 이 책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은유는 솔로몬의 영감받은 지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부에서 존재하고 그의 존재로부터 독립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 인용문에 첨부된 중요한 각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Waltke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영원히 태어난다는 개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혜가 영원히 태어났다는 개념은 주석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22-26절은 지혜의 기원을 영원한 탄생이나 영원한 소유가 아닌 일회적인 사건과 행위로 나타냅니다.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혜를 현자의 지혜의 의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위격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내 관점에서, 특히 은유의 영향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22절에서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역의 시작에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여기서 다시 시작하여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이미 여러 강의에서 논의한 레시트(reshit) 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네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그런데 이것은 Waltke가 선호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품질의 중요성, 즉 시리즈 최고입니다. 선택, 최고 또는 무엇보다도.

셋째, 원칙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넷째, 정력에서 첫 번째, 즉 장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자신의 사역이 시작될 때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이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길의 시작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활동이나 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에 대한 은유로서의 정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태어나고, 획득하고, 창조되거나,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정력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인화된 지혜는 그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Waltke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나머지 구절에서 지혜를 나머지 창조물과 구별하는 것처럼 이 문구는 지혜를 주님과 구별합니다. 23절을 보면, 오래 전, 땅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세움을 입었느니라. 오래 전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olam)인데, 이는 때로 특히 주님과 관련하여 영원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먼 과거나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미 그것은 영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먼 과거의 극단 종착지인 아크 퀴(arc quo)의 시작점, 상대적인 개념, 또는 오히려 상대적인 시간 틀을 지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Waltke는 지혜가 영원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된 시간은 그녀의 탄생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작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신학적 맥락에서만 나 올람은 영원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24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깊은 것이 없을 때 나는 태어났습니다. 샘이 없었을 때에는 나에게 물이 넘쳤습니다.

내가 출산하였다고 번역된 문구는 히브리어로 출산 시 몸부림치다라는 동사 qui를 사용합니다. 활동적인 분위기에서 이 동사는 산모가 출산 시 몸부림치는 방식을 나타내며, 첫 번째 진통으로 시작하여 아기가 몸에서 분만할 때까지만

중단됩니다. 수동태에서는 신생아의 관점에서 출산을 의미하는데, 시편 139편 13절과 같이 종종 은유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와 25b절의 교차적 평행선에서 그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탄생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사의 대리인이시므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암시하지만, 이러한 암묵적인 성별 반전은 주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Waltke는 이것이 동사의 다가적 가능성 중 하나인 22절에서 가나에 대해 제안된 출생 은유를 의심할 여지 없이 표현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출산의 측면이 실제로 22절에 표현되어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창조하다, 낳다, 낳다라는 가나의 의미적 범위가 그러므로 출생의 측면에만 제한됩니다. 다른 의미는 여전히 존재하며 여기에서 지혜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Waltke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어떤 신화적 현실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여성 파트너 없이는 신화적 현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는 것조차 이상한 일이며 해석자가 은유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유에서는 지혜가 주님에 의해 탄생하여 출산으로 왔다고 말하지만, 은유에서 주님은 지혜의 어머니로서 여성 신으로 취급됩니다.

물론 지혜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남성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은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갑자기 배우자나 배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유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9절에 도달할 무렵, 지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풍경적 묘사를 그 속에서 인류의 위치에 더욱 더 좁게 초점을 맞추도록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땅에서 분리되었으며, 표준역은 29절을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번역합니다.

그러나 다가 히브리어 표현을 사용한 말장난이 있습니다. 두 번 나타나는 것은 한계 또는 법령입니다. 바다를 위하여 그 법령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 정하신 문구는 그분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의 구절 끝에 있는 두 번째 나오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문구와 물은 문자 그대로 그의 명령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유는 욥기 38장 11절에서와 같은 생각을 취하므로 그 답은 창조주께서 적대적인 바다가 범할 수 없는 땅의 경계를 정하는 불변의 법칙이나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Waltke에서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이유는 신의 법령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다른 유대 문헌에 있는 신의 법령의 기록된 표현인 신성한 토라와 의인화된 지혜를 동일시하도록 촉발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벤 시라(Ben Sira)의 경우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1절로 갑니다. 여기서 지혜는 내가 숙련된 일꾼처럼 그분 곁에 있었고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이 거주하시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인류를 기뻐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개정 표준역에서 이것을 읽었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 구절들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표준 버전에서 숙련된 작업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오만(Oman)으로 매우 희귀한 단어이며 종종 희귀 단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만은 끊임없이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장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동사 Oman의 수동 분사로 Amun을 의미하고 수정한 다음 보살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의 의미가 와드나 간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Waltke는 와드 또는 간호가 실제로 상황에 따라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단어가 명사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Kal-여성 능동분사 Ominet nurse 또는 nurse 같은 여성 형태를 기대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다른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간호는 간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Fox의 해석은 이에 대한 변형입니다. 그는 그 형태가 자라난다는 의미를 지닌 칼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주장했다. Fox의 해석에 찬성 하여 텍스트 수정이나 여성형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초기 유대인 주석가 Ibn Jan'a 및 Moshe Kimchi와 같은 초기 권위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Waltke는 문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Kal 부정사는 Nifal 어간으로 표현되었을 수 있는 필수 수동태보다는 의미를 높이는 능동태입니다. 이 해석에 반대하는 Waltke의 또 다른 주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가 어린 아이였을 때 주님의 창조적인 일을 즐겁게 즐겼다는 주장은 그녀가 중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중대한 권위라는 개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장난기 많은 어린 아이로 묘사하는 것이 그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어린 시절의 묘사는 그녀를 고대의 존재로 표시하고 지혜가 말하는 현재의 권위 있는 존재로 표시하며, 신의 창조에 대한 그녀의 유쾌한 기쁨은 그녀가 인류에 대해 자비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표시합니다. 오만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충실하다는 뜻이다. 이 해석은 확고하고 충실한 오만 1의 칼 부정사 절대형으로 단어를 취하며 이는 일부 그리스어 번역 Simachus, Theodotion 및 또한 Targum에 이어 많은 현대 주석가들에 의해 표현됩니다.

지지하는 흥미로운 주장은 이 구절을 삼중 평행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 충실하게 있었고, 언제나 그 앞에서 날마다 축하하기를

즐겼습니다. Waltke의 관점에서는 날마다 이전 반감기를 충실히 강조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동의어 평행법과 관련된 과거의 두 표현의 관계는 정확한 평행법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뻐하는 것과 축하하는 것 사이의 유사점이 분명하지만, 그 옆에서는 이 두 표현의 관계가 멀습니다. 신실함은 매일 그리고 항상 신실함이 필요한 경우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Waltke는 이러한 모든 해석이 가능하고 역사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마지막 해석이 22절에서 31절의 더 넓은 문맥과 30절의 직접적인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Waltke는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명언 창작자의 손에 들려 있는 도구가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일어나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창조 성취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행위자라는 생각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학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Waltke는 오만을 장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대행자로서 지혜를 사용하신 잠언 3장 19절에서 뒷받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지혜가 그의 도구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의인화되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가 자신을 도구가 아니라 협력자로 여긴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Van Leeuwen은 자신의 논평에서 수메르 지혜의 신인 엔키와 그가 자신을 신성한 왕 아누의 장인이자 상담자로 묘사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자기 찬양은 주님의 건축가 조연자로서의 지혜와 정확한 개념적 평행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질서있게 세우셨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Waltke는 장인의 해석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결하게 나열했습니다. 모든 주요 논거를 한 지점에 모아 놓은 것이므로 이 구절 전체를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어휘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석 장인이 잠언 8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메시지를 문맥상 확산시켜 여호와께서 만물의 창조자시며 지혜의

창조자이심을 인용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장인이라는 주장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게 삭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논증에서 지혜는 창조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섰고, 주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정하신 때에 임재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중대한 권위를 가지도록 주장해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창조의 적극적인 주체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주장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해석은 그의 작품에서 기뻐하거나 놀고, 축하하거나 춤추는 것과는 빈약한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해석에는 가르치거나 대화하거나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증명되지 않은 서사적 명사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여성의 지혜가 자신을 남성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독특하고 히브리 시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몇 분 후에 서사시 명사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평하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단어는 여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hapax Legomenon인 oman 이라는 단어는 명사인 경우 정의에 따라 epicene입니다. 이 맥락에서 서사시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동시에 언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사이고 그것은 우연히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 남성 명사이지만 그것이 묘사하는 클래스의 여성 대표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사적 명사를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그것은 건축가들에게 흔치 않은 기술용어이고, 주변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 명칭의 서사적 사용은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잠언 8장 30절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해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인화된 지혜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행동하는 독립적인

행위자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는 대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우 지혜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였습니다.

셋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속성을 순전히 문학적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설계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도구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에 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새로 개정된 표준 버전에서 말했듯이 나는 매일 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지혜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물론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 또는 하나님과 그녀가 함께 창조된 것을 기뻐하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월터는 30절의 평행법에 대한 엄격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8.31b의 교차 평행법이 이 해석을 반박하고 지혜가 행위자임을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보여 주었듯이 평행성은 평행선의 진술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0절의 세 부분 행과 31절의 다른 두 반행은 선내 평행과 행간 평행의 조합을 형성하여 다섯 개의 평행 부분 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섯 개의 평행한 부분 행으로 나누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 봐. 그때 나는 충실하게, 장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의 거주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니 나의 기쁨은 사람이니라.

여기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장인처럼, 어린 아이처럼 충실하게 말하는 첫 번째 부분 행과 병치된 세 용어는 내 생각에 다중 언어 유희를 구성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라인은 의도적으로 모호합니다. 따라서 기쁨은 지혜 자신의 기쁨, 즉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킨다.

두 가지 답변을 모두 선호하는 상황별 지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분 선 2~5 사이에서 가장 강한 평행 관계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4개 모두 기쁨을 나타내는 용어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마지막 세 가지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축하를 행하는 자로 지혜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을 동의어 평행법으로 식별하는 전통적인 평행법 설명에서 이는 지혜가 두 번째 부분 행을 기뻐하는 사람이기도 함을 시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다른 곳에서 보여 주었듯이 평행성은 유사성뿐 아니라 변이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부분 선에는 다른 종류의 평행선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평행선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유사점은 두 절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구절의 다섯 부분 행 중 세 행에는 선행이 주님인 대명사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접미사가 두 번째 줄 부분에 추가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쁨은 지혜에 대한 주님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언급하는 연속된 네 개의 부분 행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분 선 2에서 5가 평행 부분 선의 특히 가까운 시퀀스를 형성하는 경우 기쁨을 언급하는 용어의 Chiastic 순서가 나타내는 것처럼 A는 기뻐하고 B는 기뻐하고 B 프라임은 기뻐하고 A 프라임은 기뻐합니다. 두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부분 모두 주님을 선행으로 하는 대명사 접미사가 없다는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을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임을 암시합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 있나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시다시피 이는 매우 복잡한 해석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렇게 독창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은유적이며

신학적으로 풍부한 구절을 접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에 대한 더 큰 시각과 시로서의 미학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주석적 관심의 미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본문을 읽으십시오.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공상적으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의 세부 사항과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읽는다는 뜻이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 장과 더 넓은 문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쁨, 즐거움, 축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Waltke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것은 제의적 행위입니다.

독일 평론가인 Arndt Meinhold는 또 다른 독일 학자인 Otto Kehl의 선례를 따랐으며,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그의 흥미로운 제안이 여기에 이집트 여신 Ma'at 및 Hathor와 병행하여 묘사되어 있습니다. Kehl이 보여준 것처럼 이 두 여성 신은 다른 신들을 즐겁게 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einhold는 의인화된 지혜가 창조, 놀이, 장난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지원하여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영감을 주고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원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einhold는 의인화된 지혜가 어린아이 처럼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여성처럼 묘사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Waltke는 이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서의 지혜가 주님께 활동을 창조하도록, 춤과 놀이를 통한 창조적인 활동을 성적으로 선동했다는 이교적 개념을 이 본문에서 읽는 것은 성경의 반신화적 편견에 부적합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 그러나 Meinhold는 Wisdom의 유쾌한 연극에서 어떤 성적 차원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인화된 지혜의 묘사가 마아트(Ma'at)와 하토르(Hathor)의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반드시 이 두 신과 연결된 연관성의 전부 또는 심지어 대부분이 자동으로 무비판적인 방식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아. 그럼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8장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31절에 나오는 사람이 사는 세계라는 문구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Waltke에 따르면, 이것은 창조 전체에 대한 제유이며 창조의 목적이 인류에게 적합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적인 표류는 창조의 모든 단계에서 지혜가 기쁨으로 참여함을 보여 주는 것인데, 지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우주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출현과 함께 절정에 달하는 지혜의 기쁨을 펼쳐 보였습니다. . Waltke는 H31b에서 인류에 대한 지혜의 기쁨에 대한 명시적인 초점이 지혜의 자기 칭찬의 절정을 제공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지혜의 자기 찬양의 시작과 끝에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들인 인류에 대한 언급은 지혜의 자기 찬양의 전체 부분 주위에 틀을 형성하고 지혜의 자기 찬양의 전체 내용이 인간에 대한 지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냅니다. 32~36절에서 지혜가 인간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호소로의 적절한 전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제 인간에게 직접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자녀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내 길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32절부터 36절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그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지혜 연설의 절정을 형성합니다. 자신에 대해 말한 의인화된 지혜는 자녀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친분을 구함으로써 지혜롭게 되도록 호소하는 동기로 사용됩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삶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그녀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를 찾을 때까지.

결론의 실용적인 목표는 뚜렷한 변화로 이어지지만, 의인화된 지혜가 그녀의 페르소나, 설정 및 수신자를 변경한다는 Waltke의 평가는 강의 본문에서 결론을 거의 분리하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Waltke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연설하는 성문의 중재자로서의 모습과 창조자 옆의 원시 인물로서의 모습을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문앞에서 철야를 지키도록 초대하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지혜의 메시지가 1절부터 31절까지 초대장을 발행하여 그녀의 가르침의 가치를

설명하고(4절부터 21절까지) 원시 시대부터 인류의 자비로운 언니로서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지혜의 메시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22-31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학문의 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Contra Waltke의 연설 첫 부분의 외향적인 움직임은 처음부터 청중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라는 초대로 바뀌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실, 지혜가 이제 32절에서 청중을 어린아이, 즉 문자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사람, 인간, 미성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언급과는 대조적입니다. 한 청중에서 다른 청중으로의 이동보다는 애정.

지혜는 월트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의에서 자신을 원시적 인물이자 권위 있는 중재자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다정하고 행복한 누나로 묘사했습니다. 사실, 지혜는 이제 도시의 여러 인기 장소가 아니라 집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적극적인 채용과 초대에서 친절한 환영으로의 변화입니다.

개방적인 관점에서 내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0절에 나오는 말장난의 의미 중 하나에 따르면,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는 자신을 인류의 누나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녀의 장대한 나이와 최고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깊은 애정도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모성애로 절정적으로 특징 짓습니다. 잠언 8장 32절은 의인화된 지혜가 청중을 어린아이로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인류의 어머니로 밝히는 최초이자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표현은 정의상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의미 이므로, 이 표현은 지혜가 자신을 청중과 실제 혈연 관계로 상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화된 지혜가 원시 어머니 신의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간애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이 전적으로 강조된다. 이것이 은유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은유 자체에 머물러야 하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이 호소가 실제로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의인화된 지혜를 가져오는지 여부입니다. Waltke는 아버지의 이전 강의와 상호텍스트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지막 말인 죽음은 7장의 이전 연설에서 아버지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후기 지혜를 의인화한 것으로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인용하자면, 7장과 8장의 짝을 이룬 두 개의 위대한 시 사이의 이 정확한 상호텍스트성은 여성 지혜가 현자와 그의 가르침을 의인화한다는 것을 더욱 입증합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Waltke의 의견으로는 여성의 지혜와 현자의 말을 듣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관찰은 Waltke의 주장에 더욱 무게를 더합니다. 첫째, 8장 32절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의 호소는 그녀의 첫 단어가 아니라 그녀 연설의 결론 부분에 있는 첫 단어를 구성하는데, 이는 유사점이 각각의 문맥 내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두 교훈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아들로서 인류에 대한 의인화된 지혜의 호소는 비록 아버지는 아니지만 지혜 전통을 은유적으로 의인화하고 현자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부모로서의 지혜의 지위를 은유적으로 암시합니다. 그러나 책의 독자들에게 단수든 복수든 가르치는 어머니는 순종해야 합니다. 청중이 들어야 하는 지혜의 매력에 대한 Waltke의 제안은 아마도 10-31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잠언과 말씀 모음을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직접적인 문맥에서 징계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입니다. 특히 잠언 9장의 전체 장이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연설과 다른 컬렉션.

아마도 들어 달라는 호소는 의인화된 지혜의 말씀 전체와 잠언 1-9장 전체, 그리고 아마도 이 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 전체에 나타나는 지혜 전통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34절에 나오는 기대되는 지켜봄이라는 은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에서 살피며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단순히 지혜의 청중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특정한 장소, 즉 지혜의 문과 문이 주어지는 곳으로 들으라는 명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제시됐다. Royal은 여주인의 교육, 일반적으로 인정 또는 지혜의 구혼자로 인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특정 동일시를 사용하는 연설은 매우 문제가 많으며 다양한 은유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약속으로 수많은 남성 구혼자들을 장려하는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아이디어는 공개 매춘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성행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의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은유는 지속되어야 하며 산문 해석으로 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유는 다음 장인 9장으로 이어지며, 9장에서 발표되는 의인화된 지혜의 연회 초대장의 맥락에서 지혜의 궁전에 입장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잠시 여기서 다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9장, 즉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언뜻 보기에 잠언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은 여인의 지혜에 관한 것이고, 7~12절은 표준 지혜 지침이며, 13~18절은 어리석은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과 12절은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두 의인화를 어색한 방식으로 병치하는 것을 중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의인화를 이차 삽입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훈계와 말씀이 결합된 7절부터 12절까지의 자료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교훈적 자료와 다음 모음집인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의 주로 잠언 자료와 유사합니다. 둘째, 7절부터 10절과 12절은 지혜로운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과 지혜의 가치에 대한 선포로 보이지만, 11절은 분명히 1절부터 6절의 사상과 지혜의 의인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모음집 끝에 배치된 이 부분은 각 잠언의 지배적인 문학 형식을 병치함으로써 펼쳐진 책 개봉 모음집의 소개 자료를 다음 개별 잠언 모음집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1절은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의 잠언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를 의인화된 지혜를 가르치는 부분으로 만듭니다. 교훈과 잠언 모음집, 훈계, 잠언 문장이 함께 의인화된 지혜를 상징합니다.

Waltke는 잠언 9장의 이러한 과도기적 기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복잡한 은유의 수사학적 영향을 일부 끌어냅니다.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한 지혜의 표현은 비유적으로 각각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문과 10장부터 31장까지의 모음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두의 프롤로그인 집이 완성되고, 다음 장들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인 연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녀의 사자, 즉 부모는 헌신적이지 않고 지루한 젊은이들에게 그녀의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마시도록 초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이미 그녀의 문을 열어 줄 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물론 Waltke의 상상력이 풍부한 독서가 유일한 독서는 아닙니다. Raymond van Leeuwen은 최근 지혜의 집, 이스라엘 성전, 심지어 우주 자체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지혜 은유의 상상력적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발견과 결합함으로써 Waltke를 보완하는 독서가 제시됩니다.

지혜의 집이라는 개념에는 실제로 신화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리아-바빌로니아 압수 이후 지하 담수 덩어리가 지혜의 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지혜의 주(Lord of Wisdom)라는 별명을 가진 에아(Ea) 신, 엔키(Enki)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Fox와 Waltke는 이러한 신화적 배경이 비신화화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 있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화에 대한 고의적인 암시는 설령 위생화된 형태일지라도 두 가지 강력한 수사학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거의 확실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신화적 암시는 지혜의 묘사에 신비로움과 초자연적 감각을 더해주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가 단순히 비유적 표현 이상의 것인지, 현실 세계에서 개인적이거나 어쩌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수용 역사가 충분히 보여주듯이, 여러 시대의 독자들은 이 수사적 초대에 열성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둘째, 지혜의 묘사에 나타난 이것과 다른 신화의 흔적은 수많은 현대 학자들이 다양한 고대 근동 신들의 위생적인 기초를 의인화된 지혜에서 확인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러한 학문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화적 전조에 대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다양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유사성을 지닌 다양한 신들을 나타낸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다.

신화적 암시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맞는 신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지혜를 묘사하는 신화적 자료의 목적이 의인화된 지혜가 이 신이나 저 신과 같거나 같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의인화된 지혜 뒤에 있는 고대 근동의 여신을 찾는 일을 스스로 맡은 사람들은 잠언 1-9장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여 이미지의 상상력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빠진 함정은 비유를 비유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화적 지표가 부주의한 혼합주의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남겨진 흔적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신화적 자료는 독자에게 의인화된 지혜가 수사학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것 이상임을 나타내는 의도적인 이정표입니다.

이번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9장의 1절, 2절, 3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석, 즉 상상적 해석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절.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9-1장에 나오는 지혜의 집을 짓는 일과 잠언 14-1장과 24-3장의 유사한 진술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합니다. 9-1b절의 본문을 그녀가 일곱 기둥을 깎은 대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곱 기둥을 세운 것처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있다.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적 이미지인데, 이는 그녀의 준비 과정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상당한 건축적 구조를 세웠음을 보여준다. Waltke는 동사가 구축했다는 것이 특정 유형의 장인 정신을 통해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과 31절에서 오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는 건축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묘사는 장인 창조자인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 그리고 지혜에 관한 그의 저서 중 일부에서 필로의 도시 계획 건축가의 이미지 발전과 잘 어울립니다. 잠언 9장에 나오는 건축하고, 죽이고, 초대하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순서는 또 다른 본문의 보석입니다.

고대와 최근의 수많은 문헌에서는 건물 봉헌식을 호화로운 잔치와 연관시키므로, 이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습이므로, 의인화된 지혜의 초대는 한 집 봉헌식 때 발표되는 것으로 묘사되며, 아마도 잠언 1장에서 1장까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9. 지혜의 집에 일곱 개의 기둥이 있다는 세부 사항은 똑같이 연상적이며 고대와 현대의 주석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잠언 9장의 문학 소설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지혜의 집이 그녀의 저명한 여주인과 그녀가 기대하는 많은 손님에게 적합한 웅장한 건물임을 시사합니다.

Fox는 본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설명의 세부 사항을 경시합니다. 명언: 장면의 세부 사항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함께 보면 지혜가 제공할 것이 많고 그렇게 하려는 열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듣고, 그 집에 살고, 그 음식과 술을 먹는 것은 평생의 배움을 상상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그는 묘사의 원래 의도된 수사적 기능의 기본 목적을 적어도 잘 포착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관대함과 숙박과 잔치를 베푸는 연회 이미지의 실천적 의미는 배움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산문으로 의역한 표현은 실제 내용을 대체할 수 없는 미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Waltke와 Fox의 최소한의 해석은 모두 최종 분석에서 환원주의적입니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친 많은 상징적 해석에 대한 Fox의 평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숫자 7의 상징적 해석에 대한 흥미로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식별에는 창조자를 인식하는 7가지 수단이 포함됩니다.

리컴입니다. 잠언의 처음 일곱 장은 일곱 개의 단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히치히(Hitzig)입니다. 그 다음은 대홍수 이전의 일곱 현자, 즉 바빌로니아 신화의 압칼루(Apkallu), 즉 그린필드입니다.

또는 Midrash Proverbs에 따르면 일곱 궁창 또는 일곱 땅. 또는 일곱 행성이나 창조 7일. 그리고 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전이나 성령의 일곱 가지 미덕의 은사가 Delitzsch와 같습니다.

또는 일곱 가지 문자 예술. 이러한 판독값에 대한 Fox의 평결은 유익합니다. 인용문, 이러한 모든 디코딩은 임의적이며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Waltke는 최근 학문 분야의 다소 멋진 제안을 포함하여 이들 중 많은 해석과 기타 흥미로운 해석을 나열하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모든 해석은 해석적이지,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해석에 대한 이 미니 설문조사에서 얻은 인상은 해석적 난투(free-for-all)의 인상으로, 일곱 그룹으로 구성된 거의 모든 것이 지혜의 집 기둥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열거하는 요점은 비록 대부분이 다소 환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불러일으킨 높은 수준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별은 실제로 대체로 자의적이며 공상적인 경우가 많지만 Fox와 Waltke에 대해 나는 숫자 7에 대한 언급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포함된 두 개의 전체 장의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맥에서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언어. 장면의 세부 사항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앞서 Fox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명언, 일곱 기둥이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애초에 왜 숫자를 명시하고, 왜 그렇게 상징성이 높은 숫자를 선택하는가? 확실히 그녀가 많은 기둥을 깎거나 세웠거나 3보다 큰 다른 숫자를 깎거나 세웠다는 진술이 유일한 의도가 Personified Wisdom의 집이 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 원하는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학자들이 여전히 그러는 것처럼, 여러 시대의 해석자들이 더 넓은 맥락과 숫자 7의 특수성에 의해 지혜의 일곱 기둥에 대한 언급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도록 자극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 나오는 도살은 종교적 희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고기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1절의 건축 작업과 도살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활동이었습니다. 준비에 대한 설명, 특히 특별히 혼합된 포도주에 대한 언급은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물과 음식뿐인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의인화된 어리석음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식량과 대조됩니다. 테이블 인용문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한 언급이 솔로몬의 잠언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Waltke의 제안은 끝 인용문을 다루는 일관된 방식으로 장 전체에 걸쳐 다양한 개별 은유를 해석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인화에 대한 하나의 복잡한 개념적 은유의 일부로서 지혜의 의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은유.

또한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tke가 축제를 실제 속담 컬렉션과 동일시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지혜의 잔치에서 제공되는 호화로운 음식은 분명히 지혜의 가르침의 내용을 참조하므로, 그녀가 제공하는 호화로운 잔치 음식에는 1장부터 9장을 포함하여 가르침과 잠언 전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통 가르침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대표하는 품성 미덕에는 남녀 모두의 현명한 부모의 가르침, 가족이나 마을의 장로들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더 전문적인 현자들로부터 온 것이든 일반적인 현자들의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왕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생활 센터의 고문.

그건 그렇고, 후기 기독교 작가들이 여기서 주의 만찬인 성찬례에 대한 언급을 일관되게 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암브로스는 플라톤의 심포지아와도 유사점을 봅니다. 인용하자면, 플라톤은 이 그릇에 대한 담론이 그의 책에 복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마시도록 영혼들을 부르셨으나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믿음의 음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음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암브로스는 플라톤의 철학적 대화에 나오는 심포지아의 관습 자체가 지혜의 여신의 연회에서 복사되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Waltke와 다른 사람들은 남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여자 하인을 보내는 것보다 여자 주인이 스스로 가는 것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Meinhold와 Waltke는 기원전 1400년경에 Keret 왕이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라고 지시하는 우가리트어 전설을 지적했습니다.

여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음을 보고합니다. 명언: 먹고 마시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당신의 주 케렛께서 제물을 바치셨나이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Waltke는 여왕이라도 완벽하게 외모를 갖춰 나가서 남자들을 잔치에 초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내 생각에 문제는 서사적 은유가 이제 다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시 주변에서 자신의 물건을 외치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여성은 없었습니다. 손님을 모으는 실제 하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인화된 지혜의 대중적 매력은 그 현명한 구성원을 통해 사회 전체에 스며드는 일반적인 매력을 제시합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의 가장 높은 가치를 배우고 채택하도록 돕습니다. 여종들은 젊은 세대가 의인화된 지혜로 표현되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의 교환을 통해 가르친 사회의 가장 높은 사상과 가치를 채택하도록 격려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사회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잠언의 또 다른 주석가인 윌리엄 맥케인(William McKane)은 이러한 동일성을 부인했습니다. 명언: 이 성자들은 젊지도 않고 여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Waltke는 비유가 네 다리 모두에서 걸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를 정당하게 질책합니다. 견적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Waltke의 평결은 Waltke 자신의 일부 해석을 포함하여 확장된 은유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절한 실제 대응물을 찾아야 하는 현실 세계의 참조 시나리오로 서사적 은유를 분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남성 하인이 아닌 여성을 파견하여 교사가 지혜와 가장 가까운 근접성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Waltke의 설명은 끝 인용문에서 추정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효과보다는 수사학적 효과에 대한 은유를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실제 이벤트.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William McKane의 의견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처럼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McKane이 잠언 9장 1-6절의 전체 장면이 잠언 7장 10-12절에 나오는 낯선 여인의 모델을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잘못 추론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인화된 지혜는 사랑의 여신에 대한 인위적인 대조로 묘사되며, 여신 아스타르테와 그녀의 추종자들과 관련된 동기는 지혜와 그녀의 하녀들에게 전이된다. 나는 성경의 지혜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의인화된 지혜 뒤에 어떤 실제 또는 특정 여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유는 수사학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전통 신들의 다양한 특징을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의 묘사에는 여성 신을 연상시키는 미묘한 힌트가 포함되어 있어 젊은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비롭고 거의 신성하며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빛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하녀는 실제로 실제 여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숭배자나 여성 신이 아니라 전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에 속한 젊은 여성의 이상화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하인 소녀들.

즉, 의인화된 지혜의 초대를 따르는 청년들은 그녀의 은유적 집에서 지혜의 가치를 지닌 자격을 갖춘 젊은 여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평판이 좋은 젊은 여성은 지혜의 가치를 지닌 젊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31장, 10-31장에 묘사된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자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은 배우고 현명해지라는 지혜의 초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소녀들은 미성숙한 청년들을 초대하는 지혜의 하인 소녀들로 의인화된 것입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크누트 하인 박사(Dr. Knut Hein)입니다. 세션 7, 은유와 의인화된 지혜, 2부입니다.